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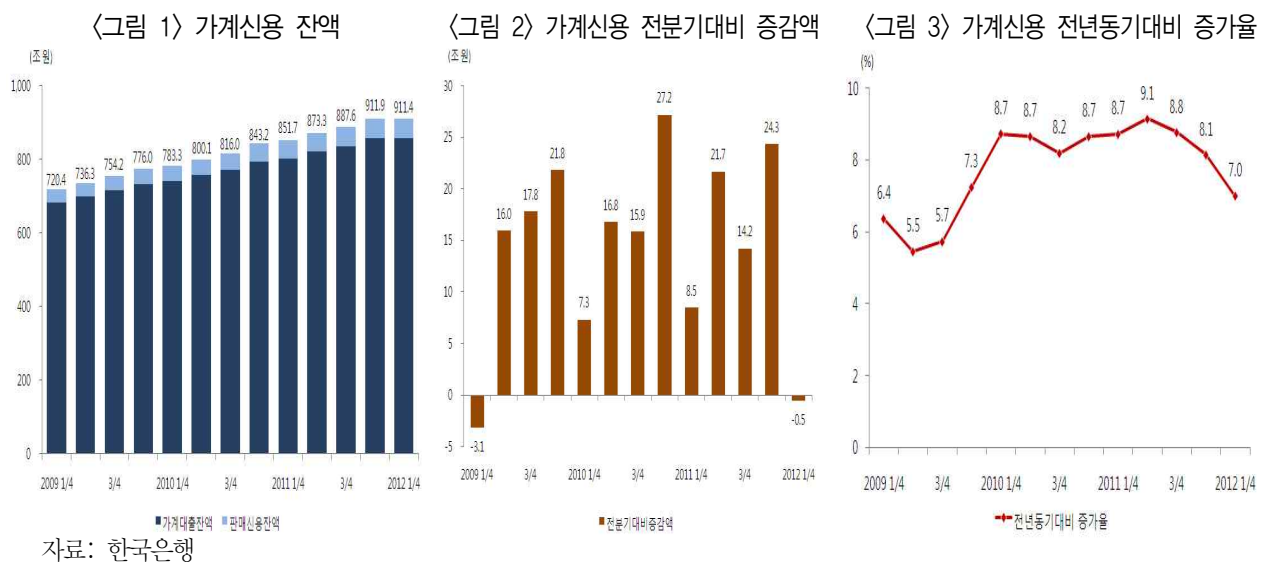


가계신용 증가율 3분기 연속 둔화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1/4분기 말 가계신용¹⁾ 잔액은 2009년 1/4분기 이후 처음으로 전분기대비 5,000억 원 감소하여 911조 4,000억 원을 기록함.

● 가계신용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도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가계대출 억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3분기 연속 둔화되고 있음.



■ 가계대출 잔액은 예금취급기관²⁾ 가계대출이 2조 5,000억 원 줄어든 반면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이 3조 1,000억 원 늘어남에 따라 6,000억 원 증가한 637조 1,000억 원을 나타냄.

●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경기 부진과 기업들의 상여금 지급 등으로 대출수요가 줄어들어 따라 2조 7,000억 원 감소함.

1)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수치임.

2) 예금취급기관은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나뉨.

-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주택대출 증가폭이 줄어들고 기타대출이 감소하면서 2,000억 원 증가에 그침.
- 기타금융기관 등의 가계대출은 연금기금, 증권회사, 한국장학재단 등을 중심으로 3조 1,000억 원 증가함.

〈표 1〉 기관별 가계대출 증감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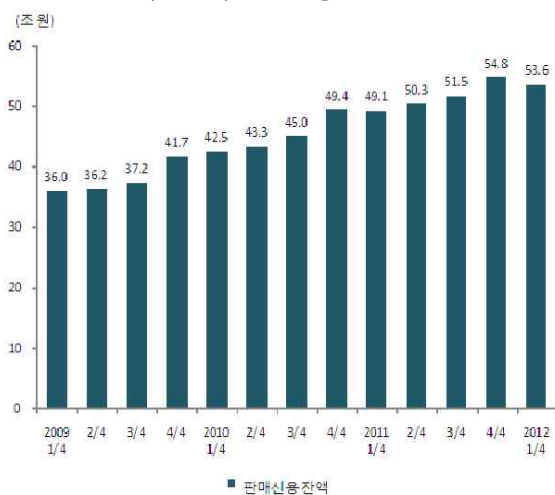
(단위: 조 원)

구분	2010 1/4	2/4	3/4	4/4	2011 1/4	2/4	3/4	4/4	2012 1/4
예금취급기관	3.4	13.6	9.7	17.1	5.8	15.3	10.8	14.2	-2.5
예금은행	0.7	8.6	3.7	8.8	3.7	9.2	5.4	6.2	-2.7
비은행예금취급기관	2.6	5.0	5.9	8.3	2.2	6.1	5.4	8.0	0.2
기타금융기관 등	3.2	2.4	4.4	5.7	2.9	5.3	2.2	6.9	3.1
가계대출	6.5	16.0	14.1	22.8	8.8	20.5	13.0	21.1	0.6

자료: 한국은행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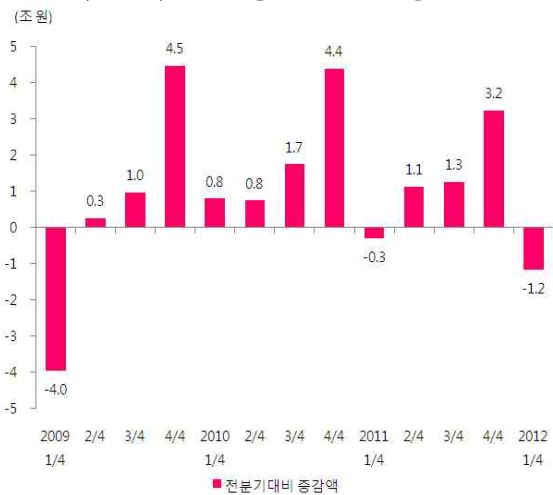
- 판매신용 잔액은 계절적인 요인 및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대책³⁾ 등의 영향으로 1조 2,000억 원 줄어든 53조 6,000억 원을 기록함.

〈그림 4〉 판매신용 잔액



자료: 한국은행.

〈그림 5〉 판매신용 전분기대비 증감액



(2012년 1/4분기 중 가계신용(잠정), 한국은행, 5/24)

3) 신용카드 발급기준 합리화, 이용한도 책정기준 합리화,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개선 등